

# 중소기업 기술제품 인증 지원사격

### 전북자치도, 기술개발제품 우수인증 모의평가·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국내외시장 확장, 판로확대 지원 위한 인증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수인증 취득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우수인증 모의평가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7일부터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은 △우수인증 모의평가 및 지식재산권·변질심사 컨설팅 지원(상반기) △기술

개발제품 인증 취득비용 및 품질시험자료 취득비용 지원(하반기)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규모는 4개 사 내외로 지원대상은 분사 또는 공장이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며 산업재산권 공인시험성적서 등 우수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조달우수, 혁신제품' 신청의 필수요소를 구비한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에 필요한 규격

서 작성을 지원받으며, 실제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로 구성된 인증취득 지도·자문위원회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모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돼 공공판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7주간 R&D종합정보시스템(<https://md.ttp.or.kr>)을 통

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www.ttp.or.kr](http://www.t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하반기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공공시장 진입·진출을 위해 취득한 필수·임의 인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우수인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의 인증취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의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우수인증을 확보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공공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고산농협과 광명농협(경기)간 도농상생 체험 및 농촌일손돕기 행사가 완주군 고산면과 비봉면 일대에서 진행됐다.

## 고산농협 광명농협, 도농상생 교류

### 딸기수확 체험·마늘종 제거작업 직접 체험

고산농협(전북)과 광명농협(경기)간 도농상생 체험 및 농촌일손돕기 행사가 최근 완주군 고산면과 비봉면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고산농협과 광명농협이 '도농상생 공동사업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 이후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교류 일환으로 계획된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광명농협 고향주부 모임, 고향사랑모임, 광명농협 임직원 그리고 고산농협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이 고산관내 딸기수확, 마늘종 뽑기 등 농촌 체험 및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이후 상호교류의 시간을 갖는 등 값진 행사로 평가됐다.

이번 도농상생 체험행사 및 농촌일손돕기는 도시농협이 농촌을 방문하여 딸기수확 체험 및 마늘종 제거작업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확한 딸기와 제거한 마늘종을 직접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시식을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광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천사인 광명 고산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고산관내에서 생산되는 딸기, 방울토마토 등 신선농산물을 판매하여 고산농협을 광명시 도시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된 고산지역 농산물이 하나로마트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일 직거래 장터 개설요청을 받는 등 고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농협 김명일 부부장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서로 교류하며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도농상생 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농협 남원시지부, 지리산농협 육묘장서 농촌 일손돕기 실시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3일 남원시 이영면의 지리산농협 육묘장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농신보남원권역보존센터(센터장 이성로),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지리산농협 산내농가주부모임(회장 송계숙) 등 30여명이 참여해 묘판내트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 남원시지부는 지난 4월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을 시작으로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다.

한편 오영석 지부장은 "바쁘신 일정에 도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 일자리센터, 취업박람회 컨설팅 지원

### 9일까지 전주기전대·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찾아가는 현장방문 진행

전북 일자리센터(이하 일자리센터)는 도내 청년들의 지역 정착유도와 취업지원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전주기전대학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찾아가는 현장방문 취업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7일 전주기전대학에서 진행되는 '2024 전주기전대학 JOB DAY'에 전주기전대학과 협업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와의 1:1 진로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사업을 안내 할 예정이다.

JOB DAY 행사는 상담 부스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체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일자리 정보 공유하고, 청년

고용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며, △퍼스널 컬러진단 △스트레스 검사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되어 참여자들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8~9일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진행되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에도 교육청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교육박람회에서는 직업계고 학교(학과)별 특성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취업정보관 △대학기관 채용설명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진로직업 교육 마인드를 제고한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방문 취업컨설팅에는 전북JOB카페(커피트럭)도 운영하여 전년도 현장 컨설팅에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 행사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진로 설계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현실적인 진학의 길을 모색하길 바라며, 학생들이 도내 우수 기업에 취업해 지역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기자

## 농진청-NH농협은행,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 '맞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지난 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 및 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능·창업능 등 청년농업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지난 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 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융경영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을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며 "축산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체계화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환경청, 유해폐기물 무상수거 서비스 확대 시행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지난해 군산·김제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과 농가 등을 대상으로 유해폐기물 무상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지역과 주기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올해 3월 상시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첫 번째 이뤄낸 성과로, 이달 3일부터 6월 말까지는 익산·부안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 까지 대상지역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영세사업장과 농가 등에서 소량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폐유,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리튬 배터리 등 4종이며, 처리비용은 무상으로 도내 녹색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전북녹색기업협의회에서 폐기물처리비 전액(10백만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고 접수처에 유선 신청(063-488-4141)하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 또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처리한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환경 관련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었기에 지난해에 이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